

Choose the One

출애굽기 34:27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구약성경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모습인 창조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조사건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아주 좋은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흐름은 하나님 나라, 특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이라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실까요?

1. 첫 번째 선택. 타락한 세상에서의 노아.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망가졌을 때의 모습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노아와 홍수사건입니다. 아담이 범죄 이후 이 땅에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땅에 가득차면서 동시에 세상에는 다른 것도 차게 됩니다.

(창세기 6: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11)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성경은 시간이 지나, 반역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해지자 세상에는 죄악과 포악함이 가득 차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게 되자 세상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포악함, 더러움. 성경이 이 세상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입니다. 구체적으로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폭력이, 범죄가, 악함이 가득찬 끔찍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분명합니다.

(창세기 6:7)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6:13)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

하므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 뿐 아니라 모든 생명과 땅, 즉 자신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난 세상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면 그 결과는 사형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종말의 선언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6:8)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 모든 것이 종말의 선언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도 않으시겠다는 다짐입니다. 노아가 무엇인가를 잘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도 없이 노아를 선택하시고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노아의 방주로 모으셔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첫 번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담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나의 다스림을 받는 나의 백성이 땅에 가득하라. 나는 이제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망가뜨리지 않겠다. 너희가 계속해서 땅에 죄악을 가득하게 만들어도 나는 나의 나라를 지키고 다른 방식으로 회복하겠다, 라는 언약을 맺으시며 무지개를 언약의 징표로 주십니다.

2. 두 번째 선택. 한사람 아브라함으로 이스라엘을 시작하시다.

이 세상의 창조질서를 망가뜨리는 심판을 다시는 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그 계획은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창 12: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그 유명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장면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실 일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여기 키워드가 3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땅을 주겠다. 두 번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세 번째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며 이것을 반드시 이뤄가실 것이라 약속해주십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 3가지가 우리가 앞서 말했던 나라의 3가지 요소와 비슷합니다. 나라의 3가지 요소는 영토, 국민, 통치권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땅과 민족입니다. 그리고 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선물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뒤이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주신 약속의 내용을 가지고 15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창 15:5)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 15: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손의 약속을 이뤄가십니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 100살에 이삭을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는 우리도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자손을 주기 위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가시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서는 야곱으로, 야곱에게서 12명의 아들들로 이 약속은 신실하게 이어 집니다. 우리가 아는 야곱이 형을 속여 장자권을 산 사건이나, 야곱이 삼촌에게 속아 아내를 네명이나 얻고 12명의 아들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어서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옮겨지게 되는 모든 사건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3. 세 번째 선택, 하나의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하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뤄가십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볼

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과 언약을 지켜가실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아무런 목적이 없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십니다. 이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천천히 이뤄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첫 번째는 출애굽기입니다.

(출1:1-7)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잇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칠십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생각해볼까요? 출애굽기는 출-애굽, 즉 애굽을 탈출하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가장 처음에는 애굽의 규모라던가, 혹은 바로라고 불리는 파라오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가장 처음은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주 많아졌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불어나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지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약 400여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잊지 않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많아지면서 사용한 표현이 바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태초의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과도 같고, 노아에게 주셨던 명령과도 같은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 빛으신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 이루려고 하셨던 창조의 목적,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꿈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성취된 아브라함 언약인 ‘자손’ 즉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야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전해 내려온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로 들어서 알고 있지만 경험해본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해 내주십니다.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주시는 과정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으로 두 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한 문장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이스라엘을 시내산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민족이 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출19:5-8)

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7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8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런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 때와 다릅니다. 이제 개인이 아니라 민족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언약을 맺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으로서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어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모든 나라에는 그 나라 사람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법’이 존재합니다.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 법은 선하신 왕의 뜻이 담겨있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리’가 담긴 질서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므로써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게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노아에서부터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차도, 개인이 실수해도, 이스라엘이 돌아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신실함으로 함께 하십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스라엘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